개회사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 집행위원장
군포제일교회[아동·청소년영역 주관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2005년, 2010년에 이어 2016년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것은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6) 는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사회적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임을 믿고 행합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교회의 복지사역을 집약하여 나타냄으로써 복음 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사회, 거룩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의 열매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옛말에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는 젖먹이 때 어머니의 교육이 40세에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영성 있는 지식인으로 세계 속의 희망이 되는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 왔습니다. 근대교육의 효시인 배재학당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고 언더우드는 경신학당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의 학술대회 중 아동·청소년영역에서는 과거의 열정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나라의 존망과 직결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논해주실, 지역에서 존경받는 강중구 원장님, 또한 미래의 거룩한 인재 양성의 방향성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해주실 글로벌선진학교 남진석 이사장님, 좌장으로 세미나를 이끌어 가실 한혜빈 교수님,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는 고기숙 교수님과 오승환 교수님, 모든 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현재와 미래의 주축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이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올바른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나도록 함께 연구하고 돕는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를 계기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와 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일정표

시간	순서	내용
16:00~16:05	인사말 및 기도	권태진 목사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집행위원장/군포제일교회 담임)
16:05~16:10	인사	한혜빈 교수(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좌장 : 한혜빈 교수(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16:10~16:40	주제발표 1	**“산부인과 의사가 바라본 저출산현상의 문제점과 대책”** - 강중구 원장(산본제일병원)
16:40~16:55	토론	오승환 교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17:00~17:30	주제발표 2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교회교육의 방향성 모색”** - 남진석 이사장(글로벌선진학교)
17:30~17:45	토론	고기숙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과)
17:45~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목차

학술발표1(주제)	
“산부인과 의사가 바라본 저출산현상의 문제점과 대책” - 강중구 원장(산본제일병원)	6
토론	
오승환 교수(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
학술발표2(주제)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교회교육의 방향성 모색” - 남진석 이사장(글로벌선진학교)	14
토론	
고기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7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산부인과의사가 바라본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대책

강중구(산본제일병원 원장)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고, 500년 안에 수십만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민족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시대에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으로 인해 1960년대 6.0명이던 출산율은 1980년대 들어 2.1명으로 감소했고, 1990년대 1.7명으로 떨어졌고 2001년부터는 계속적으로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 수준이며, 현재는 1.24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70년대에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 태어나던 신생아 수가 불과 40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사상 최저인 42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며, 내년에는 40만 명도 못 미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6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고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00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고도 합니다. 저출산과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실린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15 – 49세의 가임여성 수가 매년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분만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5 – 35세의 여성 수의 감소세가 더 심한 것이 문제라는 합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기 낳는 연령이 지난해 31세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노산이 늘어나면서 다산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여건이 악화하면서 취업난과 함께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출산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 명이나 줄어들어 관련 통계가 나온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으며, 긴급 처방으로 내년 출생아를 2만 명 이상 늘리겠다며 대책의 이름을 *2만 명 플러스알파* 로 지었고 6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중간 소득 이하의 가정만 대상으로 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전체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 처방이라고는 하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고소득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적인 지원을 할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 제대로 된 정책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출산 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부담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임시방편적인 난임 시술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임시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출산 대책 담당장관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은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를 위해 1억 총 활약상이라는 저출산 담당장관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9를 기록하자 1.59 쇼크로 지칭하며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저출산 대책을 세웠었으며, 일본은 출산율이 작년에 1.46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작년까지 출산율이 15년째 1.3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은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실무담당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지만 일본은 장관이 맡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루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부부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열악한 분만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만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수의 감소는 당연하게도 산부인과의 몰락도 초래했습니다. 동네 산부인과 병·의원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상당수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접어 버리고 다른 전문 과목의 진료를 하는 실정입니다. 산부인과전공의 지원 감소로 한해 300명 가까이 배출되던 산부인과 전문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특히 남자 전문의 수가 한해 10명 이하로 줄어들어 야간당직과 응급을 필요로 하는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 수의 부족으로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출산 기피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비용의 지원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

면 착각입니다. 임신과 출산비용의 지원은 임신부부들이 국가의 발전과 존립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나 지지체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미 바우처 제도로 임신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만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실제로 출산비용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몇 배로 부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임신 출산비용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임시방편 임신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느라 분만병원의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특히 10월 초부터 시행되는 산과 초음파 급여화 정책으로 산부인과 분만병원들이 어려움에 빠져들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산전 초음파검사 횟수제한은 산모들에게도 제때에 산전 진찰을 못 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산모나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끼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셋째, 다산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에 파격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독신으로 살거나 초산에 그친다면 감점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균일적인 선심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소득차이에 따라 차등지원은 물론이고 초산부과 경산부를 따로 나누어서 차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의 분만하는 비율을 보면 첫째가 50~55%, 둘째가 35~40%, 셋째 이상이 10%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이 한 명 낳고 둘째 아이 이상을 잘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만비율이 달라져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가 30~35%, 둘째가 50%, 셋째 이상이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셋째를 낳는다는 것이 경제력을 과시한다든지 부모가 무책임하고 무모하다는 인식이 바뀌어서 둘째는 기본의무이고 셋째를 난다면 대박이라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추가해서 결혼과 함께 2명의 자녀 출산을 5대 의무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분들은 제외해야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독신으로 있다거나 임신과 출산에 하자가 없음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잘살겠다든지 또는 첫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둘째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부들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당연히 출산 장려 세를 신설하여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셋째 아이 이상을 키우는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양육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공장 문들을 닫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경제부흥으로 잘 나가던 일본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는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절벽현상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온 국민들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믿는 자들이 나서서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경제인구가 늘어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날 방도를 못 찾고 있지만, 다산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년도	1960 -1965	1965 -1970	1970- 1975	1975- 1980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합계 출산율	2.02	2.00	2.07	10.81	1.76	1.66	1.49	1.39	1.3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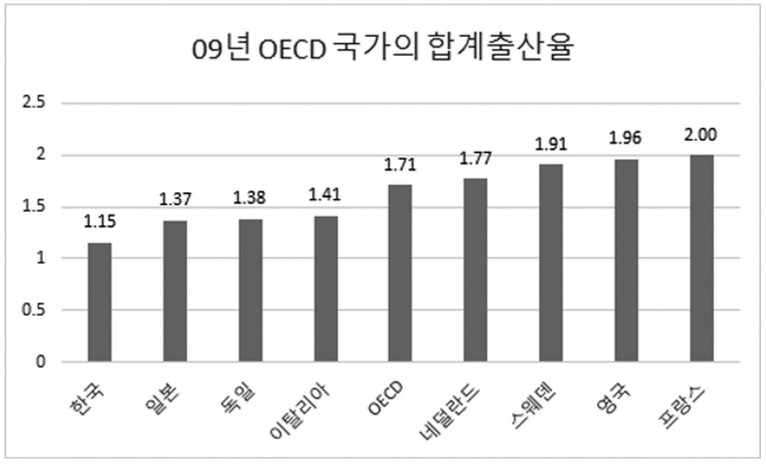
- 통계청 -

년도	출산율	년도	출산율
2000	1.46	2008	1.19
2001	1.29	2009	1.14
2002	1.16	2010	1.22
2003	1.18	2011	1.24
2004	1.15	2012	1.29
2005	1.07	2013	1.18
2006	1.12	2014	1.2
2007	1.25	2015	1.23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 보건복지부 -

국가명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프랑스	2.73	2.48	1.95	1.78	1.87	1.92	1.98	1.96	2.00	1.99	1.89
스웨덴	2.2	1.94	1.68	2.14	1.55	1.77	1.85	1.88	1.91	1.91	1.87
일본	2	2.13	1.75	1.54	1.36	1.26	1.32	1.34	1.37	1.37	1.27
한국	6	4.54	2.83	1.57	1.47	1.08	1.12	1.25	1.19	1.15	1.22
OECD 평균		2.71	2.14	1.86	1.65	1.62	1.65	1.68	1.71	1.73	



* 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1년간 낳은 출생아 수를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 '출산율'이라 함은 흔히 '일반출산율'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일반 출산율 = 1년간 총 출생 수 / 가임 연령층 여성의 수 * 1000가임 기간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조출생률은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고, 출생률은 일정한 기간에 출생한 사람의 수가 인구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보통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산부인과 의사가 바라본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토론문

오승환(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저출산의 심각 파고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강중구 원장님의 발표를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본 토론자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자의 원고에 대한 토론보다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신뢰성 제고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재확립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며,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2015년 12월 위원회에서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브릿지플랜 2020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낮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는 2번에 불과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1] 보건복지부내 저출산고령사회 기분계획 추진을 전담할 분석평가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처 신설 및 책임장관제 도입 등의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중요한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 보건복지부내 저출산고령사회 기분계획 추진을 전담할 분석평가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2)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 해결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와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152조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 예산으로는 35조 2,517억 원으로서 2015년 대비 1조 8,91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 새누리당 송희경의원 발표 자료, 조선일보 9월 18일자. 저출산 대책으로 81개 사업에 21조 4,173억 원, 고령화대책으로 98개 13조 8,232억 원, 종합대학으로 10개 사업 110억 원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상관없는 예산들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히 각 부처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예산을 총괄하고 있어 저출산이나 고령화를 대비한 정확한 예산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저출산에 투자하고 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정책 외에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정부 스스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못 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정확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우후죽순 저출산 정책에 대한 현실성 재검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남군의 경우 전국 평균의 2배인 2.47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전담팀의 신설, 신생아 양육비 지원(첫째 아는 300만 원, 둘째 아는 350만 원, 셋째 아는 600만 원, 넷째 아는 720만 원까지 지원. 넷째 아이의 경우 출산 직후 일시금이 120만 원 나오고, 24개월간 매월 25만 원씩 나눠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해남군의 정책과 비슷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경쟁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남군의 경우 출산율은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여 먹튀 출산의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저출산 정책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해남군처럼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됩니다.

2. 저출산 고령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는 아동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현재 한국아동복지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들이 기독교기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가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 회복 운동 전개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붕괴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미혼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인 가구 이상은 25%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는 2.3명,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4.7명입니다.[3] 통계청 2014년 혼인 이혼 통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에서부터 청년부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등을 통해 교회를 통한 가정회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차원에서 가족공동체 회복운동과 출산율 장려 운동 등을 여러 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아동 돌봄과 관련된 교회의 역할 강화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아동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입니다. 실제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부부들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들의 경우에도 다자녀출산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교회가 아동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보입니다. 특별히 아동 돌봄이 필요한 농산어촌 지역 교회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교단별로 아동 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아동 돌봄 기관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새누리당 송희경의원 발표 자료, 조선일보 9월 18일자

3) 통계청 2014년 혼인 이혼 통계.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교회교육의 방향성 모색

남진석(글로벌 선진학교 설립이사장)

Ⅰ. 들어가는 말

여기저기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불행스럽게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일부 교회들의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이따금 언론에 비추어지고 이로 인한 일반대중들의 시선 또한 차갑다. 심지어 안수받은 목회자가 친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를 본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신음을 내고 있다.[4] 게다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소년과 유년층의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들이 각종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적어도 80년대까지 지역마다 동네의 사랑방과 놀이터 역할을 하던 교회의 기능은 더 이상 유지되고 있지 못한 듯하다. 남다른 의미와 재미를 주던 교회는 그 역할과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교회 전국 총 성도가 곧 4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5]

설상가상으로 다양하게 진화된 기독교 이단 종파들의 기승은 기성교회의 무기력함을 틈타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단종파들이 정치세력에 기생하여 그 위세와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가는 모양새다.[6]

본 탐구에서는 현재의 한국교회의 처한 상황에서 향후 미래사회의 발전 추이(트랜드)를 짚어보고 도전과 시련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773656
5) 최윤식, 『20202040한국교회미래지도』 (서울:생명의 말씀사2015), 39-44.
6)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42390

Ⅱ. 한국 교회교육의 현주소

기독교 언론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자성의 소리가 드높다. 전국교회 중 유년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청년층의 교회 이탈이 가속도가 붙는다고 걱정하는 보도가 종종 눈에 띄고 있다.[7] 각종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은 해마다 더하는데 정작 그들의 일터가 되는 사역의 현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사회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굴지의 교회들에서 담임 목회자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를 더욱 낮 설게 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요인이 발생한다.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며 꿈과 희망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같던 교회가 어느 사이에 기득권의 아성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교회가 더는 약자의 편에서 함께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기보다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파의 이익에 집착하는 집단처럼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다. 다수의 사람은 종파적 배척과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기도 하는 흐름이 감지되기도 한다. 여전히 소리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교회의 수많은 선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고 편협 된 오해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과연 언론에 비추어진 한국교회와 주일학교(교회학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1. 주요교단의 신자현황[8]

2015년에 발표한 주요교단의 교세 현황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 최대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의 경우 교인 수는 272만1427명이었다. 이는 2014년(285만7065명)보다 약 13만5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교단의 교회 및 목회자 수는 늘었다. 합동 교단의 목회자 수는 2만2646명으로 전년(2만2216명)보다 1.9% 증가했다. 전도사(1만1153명 · 6% 증가), 장로(2만1329명 · 1% 증가) 등 교회 내 주요 직책도 모두 늘었다. 교회 수도 1만2078개로 전년(1만1593)보다 더 증가했다. 두 번째 교세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의 경우는 교인이 280만9471명으로 2014년(280만8921명)과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목회자 수는 1만8121명으로 이전해(1만7468명)보다 늘었다. 하지만, 주일학교 교세 감소가 심각하다. 유년부 숫자는 6만4637명이었다. 이는 2005년 유년부 숫자(10만5518명)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또 중고등부의 경우 15만2327명으로 2005년(18만496명)보다 더 줄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28만4160명), 기독교대한감리회(146만8442명) 등 한국 내 주요 교단의 교인 수도 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소폭 감소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5차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종교 인구 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불교 신자가 많았다. 반면 개신교는 광주와 전라, 인천과 경기 지역의 신자가 높게 나타났다.

7)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58391
8)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94442

2. 종교에 대한 인식도[9)]

한국갤럽이 30년간 국민의 종교 인식 변화를 살피는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조사 분석의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인식의 대상인지를 엿 볼 수 있다.

1) 일반적인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1984년 68%에서 1989년 70%로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4년에는 급기야 34%로 내려앉았다.

2)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1989년 81%에서 2014년 59%를 나타냄으로써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보다는 그 영향력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3)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의 여부

1984년에 65%였던 응답이 2014년에는 87%로 성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4) 종교에 대한 호감도[10)]

불교가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천주교(18%), 개신교(10%) 순이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개신교는 전 연령대에서 10% 남짓하게 고른 분포를 보였고, 천주교는 50대 이하에서 약 20%, 60세 이상에서는 10% 정도로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

3. 종교를 갖게 되는 시기와 연령대별 신자율

1) 종교를 갖게 되는 시기

종교를 갖기 시작한 시기는 10대 이하(36%)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22%나 차지했다. 종교를 가진 기간은 20년 이상의 장기 신자(62%)가 대부분이었고, 5년 미만(8%)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종교를 갖기 시작하는 시기는 10대 이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현재의 교회학교와 미래세대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시급 한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 신자가 60% 넘는다는 것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풀이되고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연령대별 신자율

1985년 조사에서 기독교(개신교)의 연령대별 신자 비율은 20대 37.6%, 30대 26.6%, 40대 16.6%, 50대 9.9%, 60대 이상 9.2%이었으나, 약 30년이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20대 15.1%, 30대 18.4%, 40대 20.6%, 50대 21.5%, 60대 이상 24.5%로 역전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9) 크리스천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78628/20150210/종교-본질-잃고-교세만-관심
10) 기독공보,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74

4. 주일학교(교회학교)[11)]

1) 주요교단별 현황

가. 2014년 기준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총 8,383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48%로 나타났다.

나. 기성총회의 경우 1994년에 교회학교 어린이 수가 16만 명 이상이었지만 20년 후 2014년에 약 1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 6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예장 고신총회의 경우 2013년 9만여 명이었던 주일학교 학생 수는 1년만인 2014년에는 8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라. 천주교의 경우 1995년에는 27만 2천여 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약 12만여 명이 줄어든 15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2) 주일학교(교회학교)사역자들의 인식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제10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박상진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주일하교 현장사역자들이 가진 인식 또한 교회학교 학생 감소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대부분의 사역자는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100점 환산으로 하였을 경우 담임목사의 경우 89.6, 부교역자의 경우 81.9, 교사의 경우 75.5로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나. 교회학교 학생 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점진적 감소'라는 응답이 35.7%, '급격한 감소'라는 응답이 10.4%에 달했다.

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25.8%, 학령인구보다 '약간 더 감소'가 24.3%, '훨씬 큰 폭 감소'가 24.1%였다.

3) 교회학교 위기의 책임소재[12)]

가. 위기 요인을 교사, 교육 내용, 교회, 교단, 부모, 문화 등 10가지로 설정하고 37개 문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이 문제다',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가 1위, 2위, 3위로 나타났다.

나. 교회교육 위기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는 말에서도 1위는 부모, 2위는 담임목사, 3위 교육담당 교육자, 4위 교회학교 순이었다.

다. 위기의 해결방안을 설문한 결과는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교육관'이 4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세대를 향한 담임 목회자의 관심' 397점, '기독교교육 생태계 회복' 343점, '교사의 헌신' 271점 순이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79점에 그쳤다.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은 분명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낮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신자의 분포율이 현저하게 낮

11) 기독공보,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74
12) 아이굿 뉴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42

아지는 경향을 보더라도 이는 매우 비상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단에서 양적으로는 숫자의 감소를 하고 질적으로는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이다.[13] 위기의식을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계층에서 느끼고 있으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실행하여야 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때이다.

Ⅲ. 미래세대가 만나야할 메가트랜드

향후 20~50년 이후의 변화된 사회에 대한 예측은 '있음 직한 미래' '있을 수 있는 미래' 또는 '바람직한 미래'로 설명될 수 있겠다. 어떠한 미래이든 간에 다음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 환경이기에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과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관련 미래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탐구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예측과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3-4년 2년에 걸쳐서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 정책 전망연구'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예측[14]

미래학자 제롬 글렌(Jerome Glenn)과 박영숙이 밀레니움 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에 의하여 펴낸 '유엔 미래보고서 2050'에 의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15년 12월 EC 보고서(Report)를 출간하였는데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크게 세 가지의 메가트렌드를 소개하였다.

1) 세계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글로벌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가 지금의 3배가 되리라 예측한다. 이는 국가간 상호의존도는 커지고 권력은 집중되고 개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여지고 불평등이 확대되고 난개발에 의한 환경은 파괴될 것이다. 2012년에 이미 유럽을 따라잡은 중국은 2030년이 지나면 연구개발 투자에서 미국조차도 앞지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 권력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무역 또한 이러한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세계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적인 국경은 유지되지만 ,경제적인 국경은 사라지거나 의미가 아주 약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국경이 없어지면 가치가 더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며, 발전이 빨라지고 아이디어를 자극하게 되어 경제는 더욱 성장하게 된다. 결국, 세계의 시장은 서서히 하나로 통합되고 말 것이다.

13) 박상진, 『교회교육현장론』(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2008)356.
14) 박영숙, 제롬글렌,이영래역『유엔미래보고서2050』(경기:주식회사교보문고,2016)19-32.

2) 인구통계학적 변화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6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다.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도시화가 인구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현재 세계평균 8%에서 그 두 배인 약 16%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는 비경제 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시장 생산성과 사회보장 재원, 공공의료 시스템과 세금 부문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으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 될 것이다. 2050년에는 67%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 것이며 현재 지구 토지 면적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인 2%에서 4%로 증가할 것이다. 메가시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양극화에 의한 슬럼이 늘어나며 여전히 주택난은 가중될 것이다. 그에 따라 도시 공간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 재사용, 다목적 사용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이다. 또한, 도시 공해 등의 문제로 인한 청정도시(Green city)의 추구와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스마트' 개념을 포함한 디지털 도시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딩크족(dinks, 맞벌이하며 아이가 없는 가구)이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일인 가구가 보편화하면서 좋은 집보다는 '노동과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대세가 될 것이다.

3) 기술 변화의 가속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차세대 지능형 웹 즉 '시멘틱 웹(semantic web)'이 보편화되고 증강현실, 양자컴퓨팅, 4D 프린팅, 나노봇(nanobot) 생산 등 상상을 초월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의 직업군은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인간의 일상생활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예컨대 기술 변화 때문에 지난 수백 년 동안 안경과 현미경, 망원경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주고 시력을 증강해주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칩을 이식해서 인공지능이 시력을 보완하거나 회복시키고 기억을 백업해주고 학습 속도를 높여주고 우리의 실수를 교정해주며 우리의 행동을 조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2.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15] 연구결과[16]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3-4년 2년에 걸쳐서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 정책 전망연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구성의 구조, 대중들의 보편적인 세계관, 인간관계의 성격적 특성, 사회에 대해 신뢰의 정도, 삶의 자리에 드리운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사회 일반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과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등이 미래사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보고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15) 1989년 청소년 관련 연구와 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보호, 복지관련 정책개발과 수립연구, 청소년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16)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 정책 전망연구 Ⅰ』(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23-56.

의 연구결과에서는 다음의 6가지 메가트랜드를 제시하였다.

1)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이미 저 출산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간 이러한 고령화는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성장률 감소와 관련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99인데 반해 2000년도에는 0.84, 2010년도에는 0.46까지 감소하였다. 206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출생률은 지속적해서 감소하였다. 통계청은 2010년 출생아 수가 47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41만 명, 2060년에는 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자연스레 아동·청소년 인구구성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1999년에는 9~2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고령 인구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60년도에는 총인구의 불과 2.9%였지만 2010년도에는 11%를 차지하였고 2040년에는 32.3%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명 중 3명꼴로 성장할 것으로 통계청(2011b)은 전망했다.

황혼이혼과 재혼 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다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한 부모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 부모 가구의 수는 2006년 1,426천 가구에서 2010년 1,594천 가구, 2011년 1,639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여성이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도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1990년 9.3%에서 2010년 20.6%로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3대가 함께 사는 직계가구의 비율은 9.3%에서 5.0%로 감소하였다.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1995년 3만 가구를 조금 웃돌던 조손 가구 수가 2010년에는 7만여 가구에 다다랐다. 아동의 수로 보았을 때 전체 아동의 5.4%가 조손 가족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다음으로 제시할 메가트렌드는 고립사회로의 전환이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것이 더는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 분위기,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고립되어 가는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고립사회로의 변화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부모들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증가이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한 부모가구의 구성은 청소년에게 커다란 고독감을 가져다준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쪽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며 이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스트레스가 된다. 특히 학업을 비롯한 일상에서의 대인관계에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을 이루지 않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 결혼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을 지속해서 늦추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 주의의 강화

감정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유토피아적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경험적으로 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 존재해 왔었다. 공적인 가치를 위하여 기쁨, 슬픔, 괴로움,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부분을 통제하고 조절했지만 더 이상은 그것들로 인한 개인의 희생이 무의미하다는 자각에서 감정사회는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교육환경과 경제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고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감정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감정은 사고와 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합리와 이성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의 사고체계를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예측에 의하여서만 언제나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감정에 지배당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감정적인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에도 깊숙이 개입한다. 일반적으로 사회 정치적 집단행동들은 왕왕 합리적 사고의 결과이기보다는 집단적 감정의 공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범적 사회가 이러한 감정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 주의의 부상이다. 현재 주의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머물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현재적인 입장에 따라 가입 이탈 재가입이 가능하다.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어떠한 구속과 억압과 규제도 받지 않으려 하며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재 주의 공동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지극히 현재적인 감정에 의하여 순간적인 판단과 자유로운 이합집산의 특징을 드러낸다. 현재주의의 또 하나의 특성은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미래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이 아닌 공동체 또는 사회전체 국가를 우선시하고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련의 요구나 가치들에 대하여 거부한다. 공적가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면 밝은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더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회인식 : 저 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다음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변수는 사회의 신뢰수준으로 볼 수 있다.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은 물론 구성원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 수준이 어떠한가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를 사회자본의 하나라고 할 때 한 사회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낮이는 미래 구성원의

삶의 행동과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있다.

한국의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주요 집단들에게 보내는 신뢰도 조사결과를 보면 2009년의 경우 국민은 의료계, 학계, 금융기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반면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한 사회의 성원들의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2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하다.[17] 이는 사회인식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게 된다. 법과 원칙 기회와 재화는 기득권층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 쉽게 작동하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더는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소위 사회지도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회의와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계에 대한 신뢰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18] 종교계의 신뢰도는 2003년 67.7%에서 2009년 65.8%로 감소하였고, 시민단체의 2003년의 신뢰도는 74.6%에서 2009년에는 7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신뢰할만한 지도층이나 종교계층에 대한 불신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도층의 부정부패 연루 사건 및 종교계의 비윤리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사회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지만, 신뢰사회 구축에 의한 갈등 해소는 더욱 어려워지고 오히려 저 신뢰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며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5) 사회구조 : 양극화 사회와 위험 증가

계층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위험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사회나 양극화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양극화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에도 커다란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사고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동원하여 졸업하게 된 대학 이후의 취업환경은 청년들에게 청죄절과 분노를 심어주고 중산층의 붕괴 자영업자들의 붕괴 등 사회계층의 허리를 이루고 있는 분야들이 허물어지면서 양극화와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회인식이 지배적이면서 부유층과 지배층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는 부모는 물론 성인 가족구성원 심지어 미성년 가족구성원조차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은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회현상을 병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하위계층은 잠재적 사회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력이 없지만, 매체의 발달에 의한 소비 욕구는 동일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입원이 고갈된 계층에서는 불법이나 탈법적 행위에 의한 수입증대에 유혹받게 되고 결국 이는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다음 세대는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으로 예측된다.

17) 김상욱 외『한국종합사회조사』(서울:성균과대학교 출판부,2009)
18)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100606.

6) 기술 환경 : 네트워크 사회와 위험 증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2012년 7월을 시점으로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에 달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가구 인터넷 보유율이 96.8%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수준이고 인터넷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도입, 무선인터넷의 상용화,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급격하게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사회는 개인과 다른 개인들을 수평적인 관계의 형태로 연결하게 하였으며, 네트워크상의 집단의 힘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과거의 산업 사회가 이윤과 재화의 효율적 창출을 위하여 개인을 결집 한 결과 당위적 피로감을 가중시켜 오히려 사회적 통합성을 저하시켰다면 인터넷의 소셜네트워크 상 관계는 목적지향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교류의 장이 됨으로써 사회 정치 경제적 소외 계층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보이스피싱, 저급하고 유해한 문화의 전파 등 온갖 종류의 피해를 양산하며 저 신뢰사회로 향하는 속도를 가중하는 역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Ⅳ. 미래 세대에게 요청되는 역량

2005년 죤 나이스비츠 (John Naisbitt)와 함께 대표적인 미래학자로 알려진 패트리셔 에버딘(Patricia Aburdene)은 '메가트랜드(Megatrend)2010'을 저술하여 2010년대의 변화될 미래를 예측하고 7가지의 트랜드를 제시하였다.[19] 첫 번째로 79%에 달하는 사람들이 더 큰 영성을 찾고 있으며 향후 기업경영 분야에서조차 지고한 영적가치에 도달하려는 영성이 요구된다고 내다보았다. 두 번째로 세계화에 따르는 자유 기업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의 더 많은 수익창출을 예견하였다.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최고 경영자들보다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평범한 중간관리자들이 부상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았다. 네 번째로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각축전에서 영적 신념을 가진 기업 즉 영혼이 있는 기업들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섯 번째로 소비자들도 단순구매자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가진 물품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여섯 번째로 기업 등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영적인 방법론이 동원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자본주의의 이기심이 영적 지혜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영성 또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기독교적 성경적 영성에 국한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원주의적 영성을 의미하고 있다.

종교 특별히 기독교라는 거대 종교가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쇠약해 질 것이고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독교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적 신념과 교회 출석률은 기독교의 요람인 유럽에서조차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갤럽 국제조사 결과 유럽인 가운데 삶에

19) 패트리셔에버딘, 윤여중역『메가트랜드2010』(서울:청림출판사,2005) 20-26.

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이들은 48%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48%와 동유럽 사람들의 44%는 일생에 거의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20] 2003년 EU는 교황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EU 헌장에서 기독교의 가치 선양에 관한 대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인의 경우 70.6%가 자신을 '기독교인(개신교·가톨릭 등)'이라고 답했다. 이는 2007년 조사(78.4%) 때와 비교하면 약 7.8%가 감소한 수치다. 반면 자신을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22.8%였다. 7년 전(16.1%)과 비교하면 6.7%가 증가했다. 개신교 인구는 현재 미국거주인구 전체의 46.5%다. 2007년(51.3%)보다 무려 4.8%가 감소했다. 가톨릭의 경우 7년 전에 비하여 2%의 신자가 유입됐지만 12.9%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 전체인구의 23%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 외 5곳의 주요조사기관의 지난 40여 년 간(1972년~2014년)의 종교 추이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이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는 5.9%를 차지했다. 특히 무슬림은 7년 전 0.4%에서 0.9%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7년 전에 미국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하여 44%만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 현재 54%가 지지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변화가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1]

일찍이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고 세계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회가 쇠퇴하는 징후를 보이는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미래 세대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와 주일학교(교회학교)의 사정과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음이 밝혀졌다. 교회의 노령화와 낮은 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신자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담임목사와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들이 미래의 주일학교를 염려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예측과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3-4년 2년에 걸쳐서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 정책 전망연구'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미래세대가 만나게 될 트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다음세대가 반드시 지녀야 할 역량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를 함양하고 갖추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설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1. 지적역량 : 다원주의적 지성에 맞설 수 있는 복음주의적 지성의 체계화

성경적 신앙고백은 종종 기독교 근본주의(fundamentalism)로 매도당하며 극단주의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특히 일부 종교 또는 사조들이 근본주의를 표방하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근본주의'는 평화를 깨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복음주의'라는 말에 대한 용어적 정의는 아주 다양하게 기술되거나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기독교내의 교파나 종파나 분파로 설명되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Mark A Noll은 그의 저서 '복음주의지성의 스캔들(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중 가장 유용한 정의로서 영국의 역사가 데이비드 베빙턴(David Bebbington)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복음주의의 핵심요소로서 '회심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적 체험으로서의 중생을 강조', '성서 주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로서의 권위는 성경', '행동주의: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는 것', '십자가 중심주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분파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변화하는 운동(Movement)이며 잠정적인 동맹이며, 지속적인 영향력'이라고 정의하였다.[22] 하바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베리타스 포럼을 설립하여 인본주의의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애쓴 켈리 먼로 컬버그(Kelly Munroe Kullberg)는 우리나라에서 '지성의 회심'으로 번역된 'Finding God at Harvard'를 집필하였다. 데이비드 베빙턴이나 켈리먼로 컬버그는 기독교의 개신교 특히 보수적 신앙과 성경적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지나치게 이성적 논리체계나 신학의 이성적 설명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성령운동의 카리스마로 이성적 논리의 모든 체계를 한칼에 무력화시키는 흐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원주의적 지성으로 인한 기독교 신앙의 황폐함에 대한 대응책과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였다.[23]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이나 은사 운동에 기인한 맹목적 신앙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탐구하는 다양한 분야를 통한 하나님의 발견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앙 운동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다원주의적 지성에 맞설 수 있는 성령체험과 지성적 신앙을 겸비한 다음세대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현재의 주일학교 쇠퇴 등 세속적 가치의 도전에 대한 교회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2. 인재양성역량 :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치밀한 인재양성계획과 실행

앞서 살펴본 대로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인 국경이 사라지고 국가 간 관세장벽의 철폐와 사이버 상에서의 생산구매방식의 변혁, 각종 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타 문화의 수용에 대한 요구들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되어는 역량들은 언어적 문화적 소통능력, 다양한 자원들을 수집 통합하여 새로운 수요를 재창출하는 능력, 상호 호의적이며 헌신적인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능력이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할 과제에 속한다고 보지만, 교회의 관점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속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는 말씀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교회학교 교육과정과 다양한 형태의 교회 부설 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3. 사회적 역량 :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에 의한 고립상황 해결역량강화

이미 우리 사회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의하여 고령화, 도시 집중화 현상의 심화, 디지털 도시의 확장, 일인 가구의 보편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경제적 보상을 위한 노동보다는 개인의 삶의 풍요를 구가하는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역기능적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孤獨死)에 대한 기사와 사회적 소외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기사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회자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고립상황에 대한 피난처로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소외와 고독에 대한 고통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의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0)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03383
21)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90300
22) Mark A Noll, 박세혁역『복음주의지성의 스캔달』(서울:IVP,2010) 34-37.
23) Kelly Munroe Kullberg, 배덕만역『지성의 회심』(서울:새물결플러스,2011) 17-22.

4. 영성역량 : 저 신뢰사회의 인간성 상실의 회복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인공지능에 의한 컴퓨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 기술로봇에 의한 인간의 소외, 저 신뢰사회의 도래에 의한 비판의식 강화, 갈등 양상의 확산, 감정에 의존한 자극적인 퇴폐문화의 추구,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등등의 상황은 인간을 점점 더 고립되고 고독하게 할 것이며 인간성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영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현혹적인 이단에 의하여 영혼이 유린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교회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영성에 힘입어 이들에게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Ⅴ. 한국교회의 교육적 대안 모색

교회학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 따른 다양한 전략들과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수많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장 효과적 돌파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2050년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분포가 5~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014년 5월에 열린 백석대 서울캠퍼스 신대원에서 열린 '제7차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을 위한 교회학교' 세미나에서 나온 키워드들은 한국교회와 교회학교 위기상황을 엿볼 수 있다. '교회학교 전도율이 최악수준' '교회학교 위기' '출산율의 감소' '인기몰이식의 한탕주의 행사가 된 교회교육' '준비된 교사의 부족' '생명력 있는 성경교육 부재' '학생들과 청년들의 세속화' '5분짜리 공과교재' '붕괴하고 있는 교회학교' '기독교 다원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흐리게'등등의 말들이 넘쳐난다.[24]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2015년 12월에 개최한 제10회 학술대회에서 교회학교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주로 나온 키워드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25] 하지만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나머지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교육의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회학교를 부흥시킨 교회들

2015년 한 해 동안 대표적 교계 일간지로 알려진 국민일보는 [저출산·고령화 극복하는 교회들]이라는 기획취재를 하여 전국의 12개 교회를 선정하여 어떻게 현재에도 주일학교와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지를 취재하여 실었다.[26]

24) 기독공보,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78830/20140519
25) 아이굿 뉴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42
2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49905&code=23111113&sid1=mis

1) 아름다운우리교회(담임: 이동훈 목사)

자신을 '신앙의 모험가'라고 소개하는 이동훈 목사는 18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를 1년 만에 출석 성도 150명으로 부흥시켰는데 핵심적인 비결은 헌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결과라고 소개되었다.

2) 영등포 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기 목사)

퀴즈 설교에 땅콩 빵 굽고, 마을 어린이 축구경기 개최하여 개척 7개월 만에 어린이 8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퀴즈설교가 끝나면 영어가 가능한 권사님의 간단한 영어강의로 학생들의 영어공부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27]

3) 남양주 동부광성교회(담임: 김호권 목사)

소속 통합교단이 추진하고 있는 '3세대 부흥운동'에 따라 다음세대 세우는 일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우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신뢰를 구축하고, 전 성도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한 결과 교회학교(영아부~청년부) 학생 1,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2007년 새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교회를 지역에 개방하고, 문화강좌를 열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공하자는 의미로 공예와 그림 치유, 악기와 컴퓨터 교습, 재취업 컨설팅 등의 교육 혜택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28]

4) 전남 광양대광교회(담임: 신정 목사)

'임산부 학교·아장아장 학교' 운영 15년 만에 100명의 성도에서 주일학교만 1,000명으로 성장하였다. '아장아장 학교'는 13~19개월 된 아기가 엄마와 함께 활동하며 친밀감을 형성토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아장아장 학교' '임산부 학교' 등 광양대광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역에서도 꽤 알려져 광고 안 해도 등록신청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대부분 참석자는 교인이 아닌 지역주민이다.[29]

5) 이천 현대교회(담임: 박행신 목사)

1995년 경기도 이천에 현대교회를 개척한 이듬해부터 19년간 매일 아침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굿모닝예배'를 인도했다. '어린이 역사기행', '청소년 역사기행', '토요문화학교', '우리 고장기행' 등으로 지역과 교육적으로 연대하여 어린이·청소년 150여 명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30]

27)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23680
28) 국민일보, 위 18)과 같은 홈페이지
29) 국민일보, 위와 같은 홈페이지
30) 국민일보, 위와 같은 홈페이지

6) 대구 엠마오교회(담임: 한창수 목사)

20가구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지만 '와이즈 마더스 클럽(Wise mother's club)' '303비전성경암송학교' 등을 운영하며 대구지역 학부모들에게 가정예배를 통한 신앙전수 운동을 전개하며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있다.[31]

7) 안양 평촌감리교회(홍성국 목사)

어린이 전문교회 설립하여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재적 1300명의 교회로 성장하였다.[32]

8) 전주시온성교회(담임: 황세형 목사)

'정철 영어성경 스쿨' '미술학교' '성품학교' '아기학교'등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맞춤식 교육으로 현재 18명이던 어린이는 300여명으로 성장하였다.[33]

9) 부천 성만교회(담임: 이찬용 목사)

'독서 마라톤'은 교회가 2012년부터 매년 여름 열고 있는 행사다. 성만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은 매년 7~8월 책을 읽고 독서일지나 독후감을 쓰면서 여름을 보낸다. 어린이들의 교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회학교 학생은 700명에 달한다.[34]

10) 경기 고양 기쁨이 있는 교회(담임: 조지훈 목사)

2008년 개척 후 350명 청년교회로 성장한 교회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회철학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성도들이 지역을 섬기며 생활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35]

11) 함양교회(담임: 이창희 목사)

204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경로대학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인사역을 하고 있다. 2009년 80명가량이었던 함양경로대학 학생은 현재 150명까지 성장하였다.[36]

12) 임실전원교회(담임: 최형 목사)

2009년 부임 시 성도 35명의 '노인 교회'를 130여 명 출석하는 '젊은 교회'로 성장시켰다. 교회학교에 30여 명, 중고등부 6명, 청년 7명이 출석하고 있어 장년과 노인을 합쳐 총인원이 130명이 출석하는 강소 농촌교회가 되었다.[37]

13)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

최근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한 지 8개월 만에 주일학교가 30명에서 1천 명을 돌파함으로써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거창중앙교회(담임: 이병렬 목사)[38]와 함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다양한 전략으로 신앙의 전통을 전수하며 성장시키는 교회가 바로 군포제일교회다. 1979년부터 강해설교가 시작되면서 장년과 유년, 부모와 아이가 매주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신앙의 대물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공과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개척초기부터 지금까지 33년간 유지해온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복지기반 복음 전도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유아 및 유치부 선교의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 역할 하였던 '제일선교원',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비전의 교실',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복지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성민청소년복지학교'와 빈곤 대물림방지 교육복지 '성민에듀투게더', '성민소년소녀합창단' 등은 어린이 선교와 청소년선교의 단절 없는 신앙적 성장의 통로로서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복지선교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복지 선교의 모델은 전 세대의 소통과 고른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해결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만하다. 모든 세대가 고른 성장으로 모든 교회의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바람직한 교회 상과 목회현장을 보여주고 있다.[39]

2.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교육의 핵심과제는 신앙교육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신앙교육을 할 대상인 미래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 고민해야 할 문제는 미래세대와 어떻게 접촉하고 소통하여 이들의 교회교육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다음에 논하여야 할 문제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교육할 미래 세대를 교회로 인도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과연 각각의 교회들이 영적인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건강한 미래세대로 키우고 있는지,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인재로 키우고 있는지는 어쩌면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선 위에 제시된 사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를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3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0903&code=23111113&sid1=mis
32) 국민일보, 위와 같은 홈페이지
3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66294&code=23111113&sid1=chr
34)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02550&code=23111113&sid1=mis
35)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83656&code=23111113&sid1=mis
3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18616&code=23111113&sid1=mis
37)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4750&code=23111113&sid1=mis
38)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3842/20160923
39) 군포제일교회는 필자가 직접 탐방하여 현장 확인 및 면접조사를 하였다.

3. 미래세대와의 접촉점 찾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의 기조 속에서 미래세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층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여전히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입시제도 속에서의 학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종교적 사색, 정서함양, 인격도야 그리고 취미활동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반면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과외 시간을 다양한 학습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하고 싶어도 관련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좌절감을 겪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 활용은 소득의 정도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문화나 특성에 따라서 시간 활용의 질과 양태가 다르게 주어지게 된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교육 기관에 비하여 학습의 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방과 후의 학습보충을 위한 시간 활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을 결국 또 하나의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계층 간 갈등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교회교육은 단순히 신앙교육을 하는 것에 앞서 우선 신앙교육의 장으로 안내하는 통로로서 미래세대를 접촉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 발달 시기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도와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교회가 지역사회 또는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각 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나름의 접촉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 접촉점은 심리적 접촉점, 문화적 접촉점, 영적 접촉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40] 다른 교회들이 주로 심리적 문화적 접촉점을 찾아서 활용하였다면, 경기 고양 기쁨이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영적 접촉점을 찾아서 350명의 청년 교회로 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1) 영유아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시스템 설치 운영

전남 광양대광교회(담임: 신정 목사)에서 설치 운영하였던 '임산부 학교·아장아장 학교'는 13~19개월 된 아기가 엄마와 함께 활동하며 친밀감을 형성토록 돕는 프로그램이고 임산부 학교는 말 그대로 임신상태의 불안한 임산부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신앙 안에서 위안을 주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을 대표할만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러한 영유아 교육기관들은 국가의 감독 하에 일정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복음적 통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전남광양대광교회의 시도는 현존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고 시행된 나머지 최적의 영유아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40) 박상진, 『교회교육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2008)380.

2)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식 교육지원 시스템 설치 운영

이천 현대교회가 시도하였던 '굿모닝예배', '어린이 역사기행', '청소년 역사기행', '토요문화학교', '우리 고장 기행' 대구 엠마오교회가 시도한 엄마들을 위한 '와이즈 마더스 클럽(Wise mother's club)'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303비전성경암송학교' 안양 평촌감리교회가 시도한 어린이 전문교회 설립 운영, 전주시온성교회가 시도한 '정철 영어성경 스쿨', '미술학교', '성품학교', '아기학교', 부천 성만교회가 운영하였던 '독서 마라톤' 등은 모두 교회가 지역 상황에 알맞은 맞춤식 교육지원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한 끝에 성공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실비 또는 무상에 가까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와의 영적인 접촉점을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격차에 다른 사회적 갈등구조를 치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4.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

앞서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요청되는 역량을 논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의 트렌드를 살펴본 바가 있다. 2005년 패트리셔 에버딘(Patricia Aburdene)에 의하여 저술된 '메가트렌드(Megatrend)2010'에 소개된 7가지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여기서의 영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적 영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인간의 영적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비록 종교 전반 특별히 유럽에서의 기독교와 미국에서의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예상되는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 교육 선교의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우선 요구되는 것은 '다원주의적 지성에 맞설 수 있는 복음주의적 지성의 체계화'이다. 근본주의로 매도되며 종파주의자나 배타적 광신자로 내몰리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원주의적 신앙 또는 세속적 다원주의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성에 근거한 지성인들에 대한 복음적 설득력을 갖추는 일이다.

1) 지적역량을 강화하라

가. 교회는 미래 세대에게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여야 한다. 영국의 역사가 데이비드 베빙턴(David Bebbington)이 제시한 복음주의의 핵심요소인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적 체험으로서의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도록 다음 세대를 주목하고 양성하여야 한다. 이들은 성경을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와 권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지상 과업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여야 한다.

나. 교회와 신학교는 지나치게 성령운동이나 카리스마로 치우치는 것과 또한 이성적 논리체계나 신학의 이성적 설명에 기초하여 다원주의적 지성으로 인한 기독교 신앙을 황폐하게 하는 데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다. 성령운동이나 은사 운동에 기인한 맹목적 신앙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탐구하는 다양

한 분야를 통한 하나님의 발견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앙 운동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원주의적 지성에 맞설 수 있는 성령체험과 지성적 신앙을 겸비한 다음세대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세속적 가치의 도전에 대한 교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라. 교회 내에서 각종 신학적 신앙적 주제에 대한 좀 더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심령부흥회 나 사경회만큼이나 기독교 석학들의 강좌들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들에 대하여 지성의 도구로 비판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

2)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키워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전환기에 살고 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영토 안에서 법률에 의한 거주의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의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토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이버(Cyber) 영토라는 인터넷상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영토라는 말을 사용한다. 생산된 물건들이 유통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일종의 시장 확장과 크기를 일컬어 하는 말이다. 또 다른 하나의 영토는 문화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류(Korean wave)라는 것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양한 한류 문화적 컨텐츠들이 도처에 진출하여 각종 매체를 타고 세계 어디서나 흘러넘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과거처럼 자신이 속한 국가의 영토라는 공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이버 영토에서, 경제적 영토에서, 문화적 영토에서 마음껏 역할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복음 전도의 기회와 방법이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영토를 마음껏 활용하기 위하여 크리스천 미래 세대들은 반드시 언어능력, 정보통신기술(IT)에 기반을 둔 소통능력,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극대화 시켜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의 역량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교회마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공교육의 보완재로서의 글로벌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입시 지향의 방과 후 과정보다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고립된 현대인을 구출하라

우리 사회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의하여 고령화, 도시 집중화 현상의 심화, 디지털 도시의 확장, 일인 가구의 보편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에 의하여 이로 인한 역기능적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孤獨死)에 대한 기사와 사회적 소외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기사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이제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소외와 고독에 대한 고통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출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가. 지역 관청과 협력하여 가조구조의 다양화에 대한 현황 파악을 먼저 하여야 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결손가정, 노인가정, 다양한 1인 가구 등 고립과 고독의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의 자리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여야 한다.

나. 파악된 삶의 자리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전략회의가 있어야 하며 필요시 관청 이웃교회 등과 연합

연계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사성 일회적인 활동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문적인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 구출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상담자학교, 위기관리자 전문가 학교 등 고립된 현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일에 투자하여야 한다.

4)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키라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 기술로봇에 의한 인간의 소외, 저 신뢰사회의 도래에 의한 비판의식 강화, 갈등 양상의 확산, 감정에 의존한 자극적인 퇴폐문화의 추구,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등등 인간성 상실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더군다나 이단 사상의 범람에 따른 바른 신앙의 고수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추락하고 퇴락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영성 회복운동이다. 영성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회교육은 신앙의 기본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Ⅵ. 나가는 말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없다. 서구교회가 그러하였듯이 한국교회도 필시 쇠퇴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군다나 인구통계학적으로 문화적으로나 그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한국의 기독교계 여러 언론과 관련 학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쇠퇴원인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교회학교의 침체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요인. 둘째, 교회적 요인.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이다.[41)]

◇ 교육적 요인에는 교사와 교육자의 전문성 사명감 영성 비전 등 교육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 교육철학 및 교육목적의 부적절 또는 부재에 관한 문제, 교육방법론의 전문성과 적합성의 문제가 포함된다. ◇ 교회적 요인으로는 목회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문제, 성인중심의 목회, 성인목회의 부설기관 정도의 교회교육부서 위상, 교회학교의 고립된 위상 등이 포함된다. ◇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세속적이고 물질주의 경향성, 포스트 모더니즘적 영향, 뉴에이지적 문화 흐름 등이 포함된다.

이미 향후 미래세대가 만나게 될 사회문화적 차원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세대가 어떤 역량을 준비하여야 하며 한국교회는 교회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교회교육의 쇠퇴원인을 살펴볼 때 교육적 요인, 교회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전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문성 제고이다. 교회는 그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교

41) 고영수 외『21세기 한국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2008)139-150.

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투자를 게을리 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을 다음 세대, 즉 미래세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조사에 근거한 지역과 세대 친화적인 접촉점을 시급히 찾아서 시행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서 지적역량 강화를 말한 바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정보통신의 발달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개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교육의 새로운 활로가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교육의 체제가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타문화 교육, 외국어교육, 인간관계교육 등 시장의 세계화에 걸 맞는 교육을 준비하고 시도하여야 한다. 필자는 중고등과정의 국제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지난 13년간의 교육결과는 그나마 미래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사역에서 매우효과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보고 있다.[42)]

고립된 현대인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교회는 상담자학교, 위기관리자 전문가 학교 등 고립된 현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일에 투자하여야 하며 구출작전을 지금 시작하여야 한다. 상실된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를 체험한 영성으로만 가능하다. 병들고 지쳐있고 고립되어 인간성마저 상실되어 있는 현대인들에 대하여 정신의학적이며 심리학적 접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교회가 주님 주신 수순한 영성으로 다가가 사람들을 살려야 하며 교회와 교회교육이 더 이상 이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교육적 대안모색으로서 Ⅴ장에서 제시된 각 교회의 주일학교(교회학교)교육 및 미래세대(다음 세대)인 청소년 유년부의 부흥 성공사례는 한국교회가 일찍 좌절하고 포기하는 패배주의에 젖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오히려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금이야말로 온 교회가 전략적 연대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세대가 요구하는 접촉점을 찾아 새로운 교회교육의 시도를 해야 할 최적의 기회라는 점을 밝혀주고 싶다.

42) 필자는 2003년에 글로벌 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를 설립하여 충북음성, 경북문경,미국펜실베니아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현재 1,000여명의 재학생이 중고등과정을 국제화과정으로 수학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식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Ⅷ. 참고문헌

1. 국내서적

고영수외. 『21세기 한국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2008.

김경훈. 『한국인 트렌드』 서울: 실록출판사,1994.

박상진. 『교회교육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2008.

박상진외.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말한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2012.

최윤식, 『20202040한국교회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2015.

2. 번역서적

George Ochoa. Melinda Corey.The 100 Best Trends 2005.안진환역『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Next Trend』 서울:한국경제신문,2005.

Jerome Glenn.박영숙.State of the Future 2050.이영래역『유엔미래보고서2050』경기: 주식회사교보문고,2016.

Kelly Munroe Kullberg.Finding God at Harvard.배덕만역『지성의 회심』 서울: 새물결플러스,2011.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박세혁역『복음주의지성의 스캔들』 서울: IVP,2010.

Patricia Aburdene.Megatrends 2010.윤여중역『메가트랜드2010』 서울: 청림출판사,2005.

3. 학술논문

김상욱외 "한국종합사회조사"성균관대학교,2009.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 정책 전망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이현철. "한국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의한 내러티브(Narrative)탐구" 개혁논총28호,2013.

황병준. "한국교회학교의 실천적 전략을 위한제언." 『신학과 실천』 2011.

4. 인터넷 자료 및 신문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49905&code= 23111113&sid1=mis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23680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0903&code= 23111113&sid1=mi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66294&code=23111113&sid1=chr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02550&code=23111113&sid1=mis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83656&code=23111113&sid1=mis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18616&code=23111113&sid1=mis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4750&code=23111113&sid1=mis

기독공보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78830/20140519

기독공보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74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4642390
미디어펜,http://www.mediapen.com/news/view/100606
미주중앙일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03383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90300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94442
아이굿 뉴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42
아이굿 뉴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42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6854
중앙일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58391
크리스천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78628/20150210/종교-본질-잃고-교세만-관심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773656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교회교육의 방향성 모색에 관한 토론문

고기숙(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논문은 현재 한국교회 및 주일학교가 당면해 있는 현주소를 정확하게 분석 및 진단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글은 미래 세대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먼저, 한국 교회 및 교회교육이 처한 현주소(신자현황, 종교 인식도, 주일학교현황 등)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만나게 될 메가트렌드를 광범위하게 살폈습니다(세계화, 인구통계 변화 예측, 기술 변화의 가속,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 주의의 강화, 저 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 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 사회와 위험 증가 등). 이런 트렌드 앞에서 미래 세대에게 요청되는 역량으로 지적 역량, 인재양성 역량, 사회적 역량, 영성 역량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의를 끌었던 내용은 한국교회의 교육적 대안 모색을 위해, 교회학교 부흥 사례를 정리 및 분석하고,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앙교육, 미래세대와의 접촉점 찾기 등을 제안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비롯하여 교회 학교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 중에서 토론자는 본 세미나의 주제인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 교회와 교회교육이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는 점에 깊이 통감하였습니다. 어떤 통계 숫자 앞에서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가 2014년 기준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총 8,383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8%로 나타났다는 점은 교회학교의 위기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단에서 양적으로 숫자의 감소를 하고 질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졌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을 실행해야만 하는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동의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교회의 초기를 이끌었던 초대 선교사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의료, 농촌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교회의 책임으로 보고, 실천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곽안련 선교사는 종교를 하나님과 한 사람의 관계로 보았던 당시의 신학적 관점에 대하여 “하나님과 두 사람이 서로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곽안련 선교사는 교회 사회사업의 대상을 빈민, 고아, 노인, 환자, 수감자, 성매매 여성, 중독 문제 등 넓게 보고, 이 분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회의 개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물질적 차원에서 심리, 사회, 문화적 차원, 더 나아가 제도적, 법적 차원까지 넓혀 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43] 곽안련 선교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교회의 사역을 복음 전파 및 선교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영역까지 넓혀,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본 논문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 즉,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구, 다문화 가정 문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도와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인식에 매우 동의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 논문에서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자는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희망과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교회학교를 부흥시킨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신앙 교육, 퀴즈 설교, 영어 강의, 지역 개방 프로그램(공예와 그림 치유, 악기와 컴퓨터 교습, 재취업 컨설팅 등), 임산부 학교·아장아장 학교, 와이즈 마더스 클럽,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어린이 전문교회, 정철 영어 성경 스쿨 미술학교, 성품 학교, 아기 학교, 독서 마라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기도와 예배 실천, 경로대학 운영 등 다양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 사례와 연관되어 있는 각 교회들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심리적, 문화적, 영적 접촉점을 찾아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3) 곽안련 지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엮음. 『1932년판 곽안련 선교사의 교회사회사업에 관한 현대적 해석』 (한들출판사, 2012).

토론자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례들을 교훈 삼아 교회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보다, 각 교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분석하는 일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마다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 그리고 주민 특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욕구를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설문조사 혹은 주민 인터뷰) 파악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교회가 개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욕구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은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전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사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사회복지전문가를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가 지역사회 내 취약한 계층에 파고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세대는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인데(여기에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청년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 감독 하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데 초점을 둔 신앙 교육,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 세우기 등에 관한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양육 및 지도, 감독, 훈육에 관한 올바른 신앙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빈곤, 학대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들이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쉼터에서도 아동, 청소년에 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아동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아동, 청소년들이 단기, 중기, 장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쉼터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하고 있으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이나 교재를 살 돈이 없거나, 핸드폰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거나, 가정에서 당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처와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 예를 들어 후견인 및 후원자 연결, 자원봉사, 신앙 및 영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와 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 국내 수많은 교회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교회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그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기독교계에서 국내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여 사례집을 편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다른 교회들이 그 사례집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참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회들이 사회문제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관한 사례들도 수집하여 국내에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하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예비학교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녀가 연애 중 혹은 결혼을 앞두고 각자의 가치관, 성격, 생활태도, 신앙 등을 비교해 보고, 커다란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 자신들의 관계 및 결혼을 재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조정, 중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예비학교가 이혼율을 낮출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글에서 미래세대가 만나게 될 메가트랜드 중에서 기술 환경 측면에서 네트워크 사회와 위험 증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현대 시대는 디지털 전회(turn)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디지털 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아날로그 문화는 옛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 중에서도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 관계 등 모든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된 이후 사람들의 생활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친구, 연인과 함께 있어도 제각각 자신의 스마트폰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공간에 몸은 함께, 마음과 정신은 서로 따로인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하여 연구한 일이 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징후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하여 존재의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고, 스마트폰의 자신의 우상이 되어가는 듯 하다며, 영적 생활의 변화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44)]

그렇다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은 디지털 문명화에 따른 하나의 획기적인 수단과 도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사람 위에, 관계 위에, 또 하나님 위에 두지 않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만 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도 스마트폰 의존 아동과 청소년들을 구별하여, 스마트폰이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앙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이용하면서도, 중독, 의존, 우상화는 피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적절한 교육,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 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필요할 때 스마트폰 성경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문서로 된 성경책 읽기의 중요성 강조, 스마트폰 없이 대화하기, 시간을 정해서 아날로그 문화 접하기 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4) Ko, K. S.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Spiritual Conflict Resulting from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Focused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Indian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2015) 8(S1): 398~404.

CAUSE

becaus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CAUSE

becaus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CAUSE

becaus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CAUSE

becaus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